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법무부장관 인사말씀 (‘23.11.29.)>

I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일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현실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걸, 한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저는, 범죄피해자를 잘 보호하고 잘 지원하는 것이 그 중 하나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범죄피해자분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시는 분들이 서로 서로 응원하기 위해 시작된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올해로 16년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 등으로 이렇게 다 같이 모여 뵙는 자리를 할 수 없었는데요,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님,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님, 김학자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님, 김혜정 한국피해자학회 회장님 그리고 여러분 모두, 이렇게 현장에서 뵙게 되었네요. 우리가 이렇게 뵙게 되어 참 좋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헌신하신, 오늘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며칠 전, 2019년 경남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분들께서 제기하셨던 국가배상소송에 대해서, 국가 소송수행책임자로서 항소포기를 즉시 결정하고, 유족분들께 공개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걸로, 사랑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잃은 유족분들의 상처가 백만분의 일도 아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번 머릿속으로 생각해봤는데요, 그 마음이 상상조차 안됩니다.

범죄피해를 막지 못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문제를 개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더 정신차리고,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월,

층간 소음에서 비롯된 범죄피해를 입은 가족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던 가족은,

범죄피해로 인해 깊은 상실감에 빠져계셨지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검찰청 관계자의 도움 덕에, 삶에 대한 희망을 다시 가질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범죄피해자의 마음을 보듬기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더 분발하겠습니다.

III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는 꾸준히 정비되고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지원사례도 증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범죄는 여전히 발생하고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보다 두텁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해 10월 20일부터 관련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논의를 지속해왔고,

최근, 서울특별시와 ‘범죄피해자지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 관계자들이 같은 공간에 모여 시너지를 냄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것이죠.

내년 중 1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함께 일하게 될 전담인력도 피해자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 제공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를 만들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우리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현실세계의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현실세계의 범죄 피해자들이 당장 실감할 수 있는 개선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흥기 테러위협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봤고,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봤고, 청담동 조작, 검언유착 조작 등 다수 가짜뉴스 조작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봤습니다.

물론, 제가 그 범죄들로부터 받은 피해들은,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에게 연쇄살해당한 피해자들, 부산의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 분당 서현역 사건 같은 이상동기 범죄피해자들 같은 흉악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에 비하면 깃털만큼도 안 될 겁니다.

다만, 제가 여러 가지 범죄 피해를 받는 동안, 우리의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마음으로 이번에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도 최일선에서 피해자와 함께하시는 여러분 없이는 어떠한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선의가 없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제도는 존재할 수조차 없을 겁니다. 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동료시민들이 여러분들을 믿고 의지할 겁니다.

IV

열정과 헌신을 다해 노력해주신,

범죄피해자지원 기관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누가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 라고 묻는다면,

단호하게 피해자 인권이 먼저라고 답하겠습니다.

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인득 사건 유가족분들을 포함하여, 이 나라의 모든 범죄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부와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도울 겁니다. 그분들의 일상을 되찾으려는 용기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11월 29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